

내국인 숙련 인력 부족, 고령화 심화... 건설산업 존립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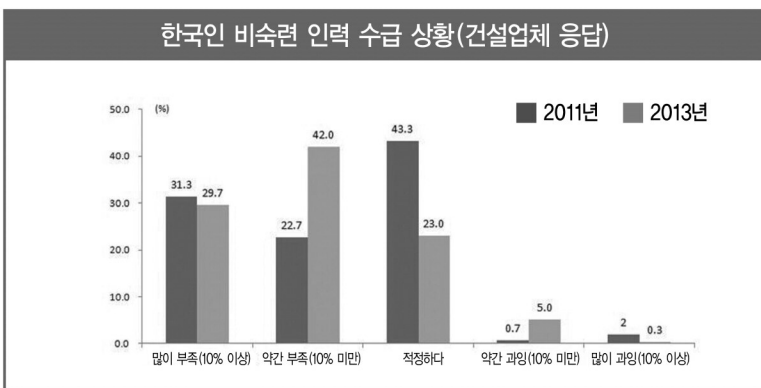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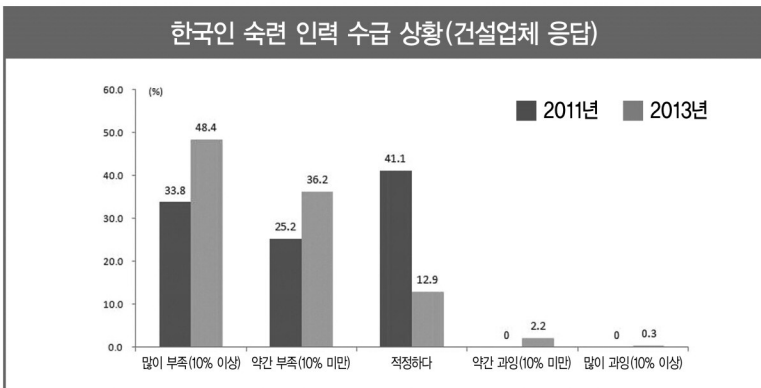
- 2013년 '건설 기능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이 글은 2013년 9월에 실시했던 '건설 기능인력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이다.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근로자용 728부와 사업주용 320부로 총 1,048부다. 2011년에 실시했던 동일한 조사 결과와 함께 제시하여 비교하고 있다. 한국인 숙련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통제하지 못하는 불법 취업자가 과다해지면서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되어 숙련 인력 재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기능인력 수급 실태

한국인 숙련 인력 수급에 대해 건설업체의 84.6%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비숙련 인력에 대해서도



71.7%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2011년에 비해 부족 정도가 심화되었다.

내국인 숙련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근로자와 건설업체 대부분이 '공장 제작과 외국 인력 도입을 병행해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해, 근본 대책은 우리의 젊은 층을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3년 수급 전망에 의하면 외국 인력을 제외한 '내국 인력 부족 규모'가 2014년에는 약 8만명이고,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약 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외국 인력 현황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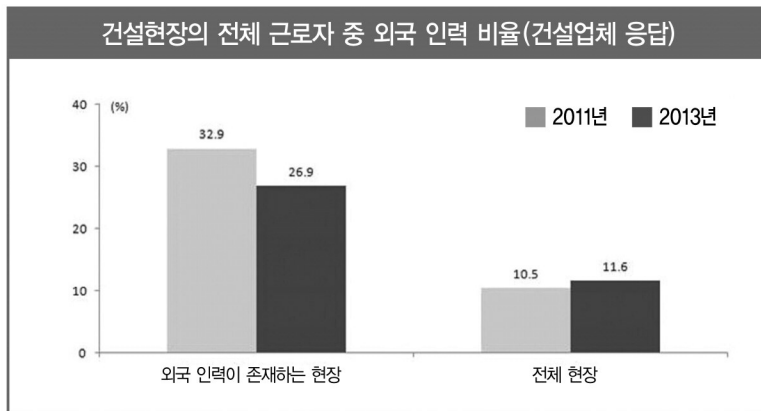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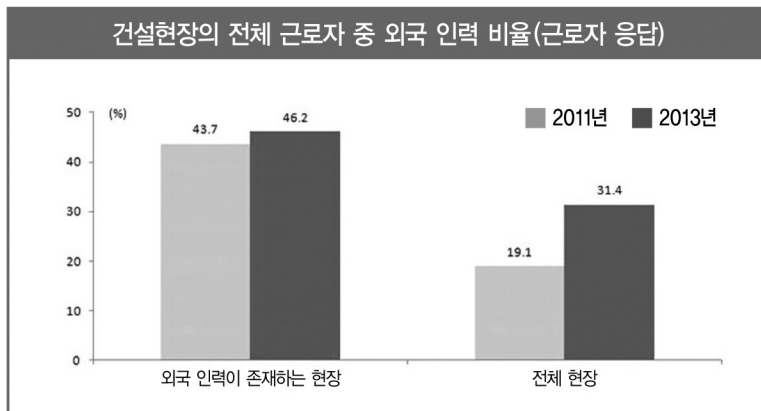
현재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외국 인력이 있는지 묻자 근로자의 54.4%와 건설업체의 33.8%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외국

인력이 있는 현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외국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46.2%, 건설업체 응답에 의하면 26.9%이다. 외국 인력(동포 포함)간 구성비는 건설업체 응답에 의하면 동포(조선족) 50.6%, 중국인(한족) 28.8%, 기타 외국인 20.6% 순이다. 2011년에 비해 중국인(한족)의 비중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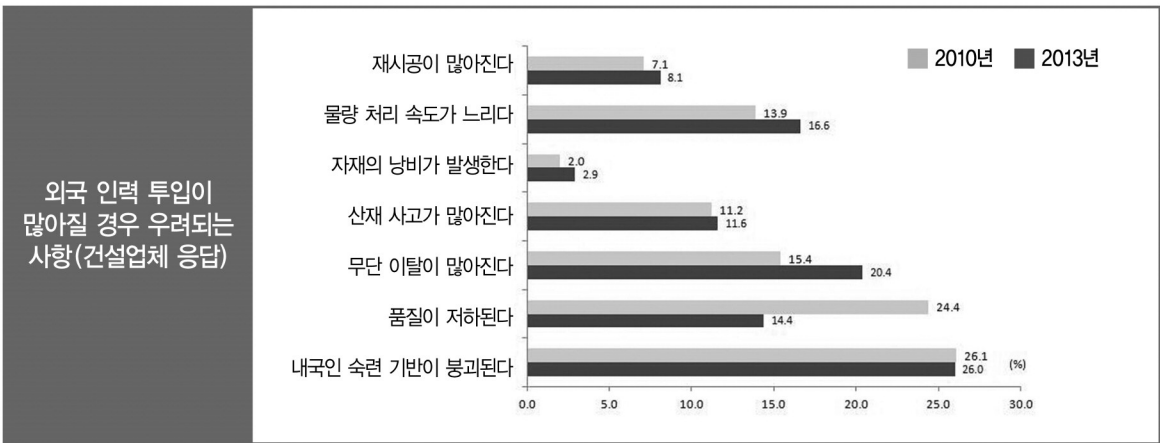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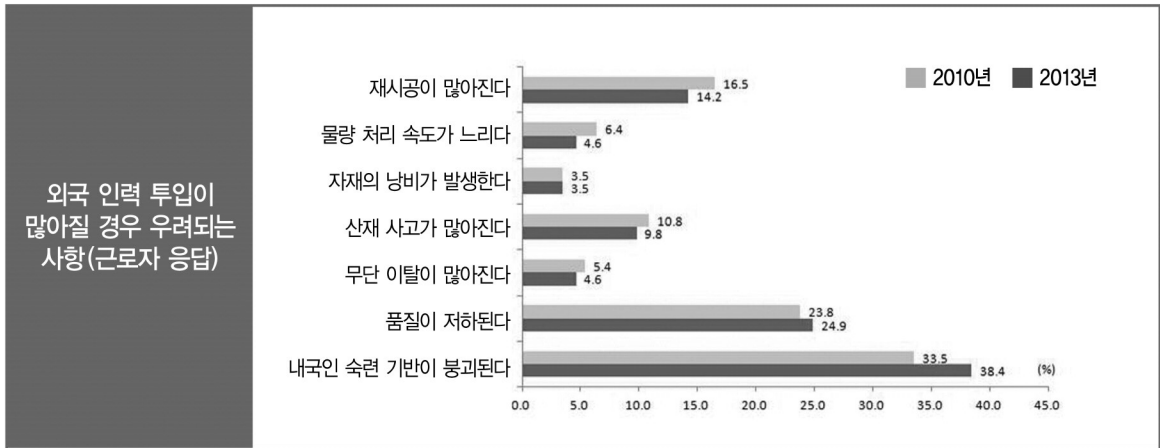
내·외국인 숙련별 일일 임금에 대해 건설업체 응답에 의하면 한국인과 조선족의 경우 큰 차이가 없이 숙련 인력 14.7만원, 비숙련 인력 10.9만원인 데 비해, 한족을 포함한 기타 외국인의 경우 숙련 인력 12.5만원, 비숙련 인력 10.2만원으로 내국인과 격차가 있다.

임금 이외에 숙련도를 함께 고려한 채산성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수는 한국인 대비 외국 인력 기능 수준 비율을 한국인 대비 외국 인력 임금 비율로 나눈 것으로서 100보다 클수록 채산성이 향상되고 작을수록 저하됨을 의미한다.

조선족과 기타 외국인 모두 채산성 지수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외국 인력 고용이 채산성 악화의 또 다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조선족의 경우 숙련 79.5, 비숙련 75.9이고, 건설업체 응답에 의하면



경영 정보



조선족의 경우 숙련 83.3, 비숙련 78.6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이유는 공사비 부족과 내국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외국 인력의 임금이 낮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 (30.6%)이 가장 많고, 건설업체 응답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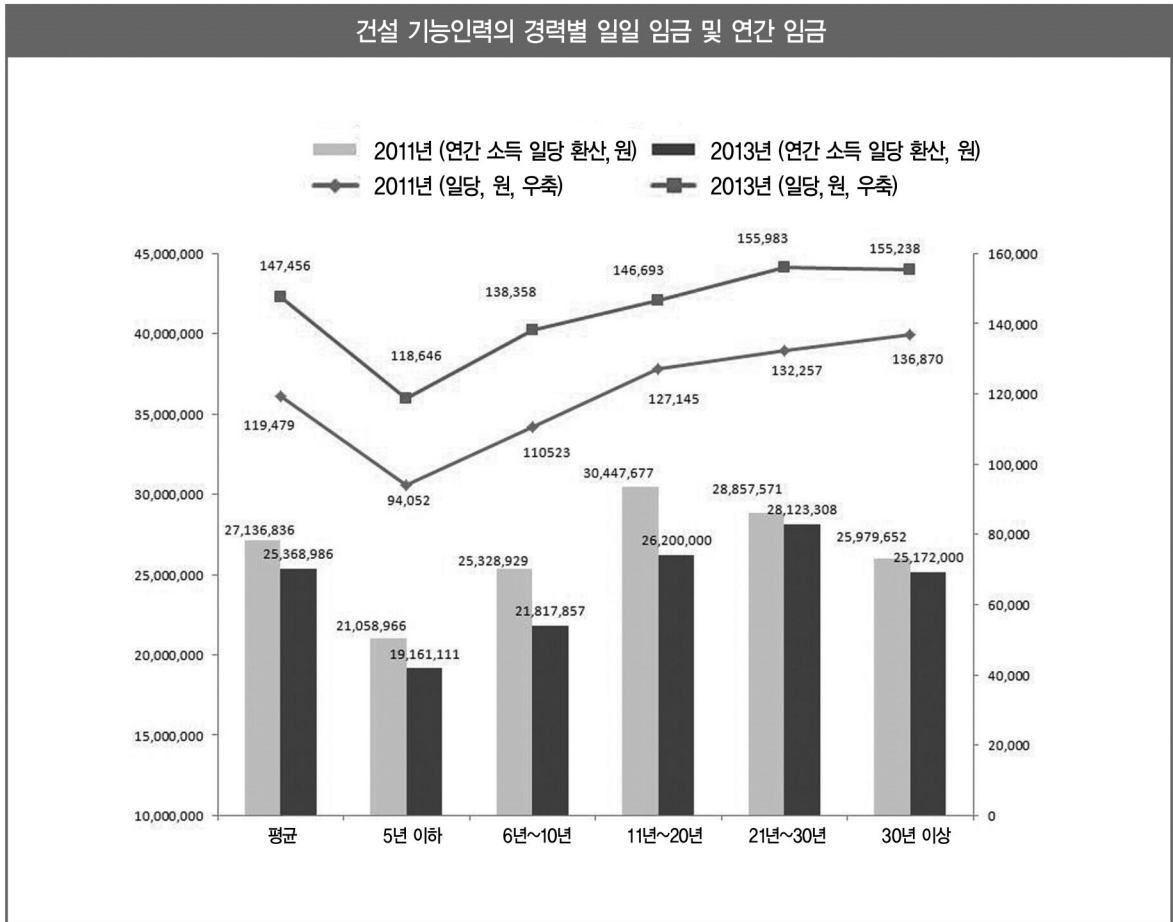
일할 내국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41.7%)이 가장 많다.

외국 인력 투입이 많아질 경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건설업체 모두 '내국인 숙련 인력 기반이 무너진다'가 가장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2013년 현재 건설현장에는 약 2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약 19만명은

불법 취업자로 분류된다.

연간 근로일수 및 임금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일수는 평균 171.4일로 나타나 2011년 조사(건설근로자공제회 DB 활용)에 비해 56.1일이 감소했다. 여기에 평균 일일 임금을 곱하여 환산한 연간 임금은 2,536만 8,986원이다.



2011년에 비해 일일 임금이 상승했으나 연간 근로일수의 감소로 연간 임금은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내국인 숙련 인력 부족으로 내국인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저가 수주로 인한 노무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면서 내국인의 근로일수가 감소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 심화 및 숙련 인력 기반 붕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3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1.7%인 것에 비해 건설 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1.8%로 나타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다.

청년층의 진입은 거의 중단되고 중년층이 줄며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현장의 숙련 인력

기반은 붕괴되고 있으며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저하는 물론 건설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젊은 층의 진입 촉진을 위한 임금 및 고용 개선 등 직업 전망의 제시와 숙련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 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CERIK